철제 펜스에 막힌 30년 넘은 금성산 둘레길

나주시 산주 설득해 하루 만에 길 텄지만 불안불안
도시공원 일몰제 여파, 산주 재산권침해 항의 차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나주시, 임야 매입해야"

전남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 등산로의 일 부분인 한수제 좌안 둘레길이 한때 갑작스럽게 전면 폐쇄되면서 등산객과 트레킹족들이 발길을 되돌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산주인(山主)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폭 5m 남짓한 길 한복판에 기둥을 세우고 철제펜스로 둘레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30여년 간 둘레길을 이용했던 등산객과 걷기운동을 나온 시민들은 이곳이 사유지인지 까맣게 몰랐다가 황당해 한 것으로 전해진다.

11일 등산객 서모씨에 따르면 한수제 좌안 둘레길이 일요일이던 지난 9일까지 멀쩡하게 통행이 가능했는데 하루 지난 10일 오전부터 길 한복판이 철제 펜스에 가로 막혀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나주시가 산주인을 설득해 당일 오후 막혔던 길을 가까스로 열었지만 한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언제 또 다시 막힐지 모른다.

일반 도로와 임도는 사유재산에 해당돼 설치된 구조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산주인이 지난해 전면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개발행위를 막고 있는 공원 지정을 해제하든지 임야(3만7000평·11만2389㎡)를 나주시가 매입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이제 갓 협의가 시작된 가운데 원만한 타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폐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유가 된다.

둘레길을 품고 있는 해당 임야는 과거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가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 지정돼 건축행위를 비롯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산주인은 지난 2000년 제정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규정한 대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인 만큼 공원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재산권 행사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에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할 경우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10일 오전 전남 나주 금성산 등산로의 일부분인 한수제 좌안 둘레길이 철제 울타리에 막혀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울타리에 사유지 출입을 금지하는 산주인의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나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당 임야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둘레길이 위치한 금성산은 국립숲체원이 들어선 데다 현재 나주시가 금성산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원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아무런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강제로 막을 수 없는 시대가 됐고, 정부도 이러한 점을 들어 공원일몰제를 시행한 만큼 금성산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고 감정평가 실시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임금체불 추가기소' 싸이월드 전 대표에 벌금형 구형

벌금 1000만원 구형…직원 29명 중 27명 합의

직원 임금·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8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 29명 중 27명은 전씨 측과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2명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합의를 못한 남은 2명에 대해선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량을 변경하게 됐다"고 전했다.

합의하지 않은 2명에 대한 미지급금은 6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앞서 2019년 상반기에 퇴사한 직원 27명의 임금·퇴직금 4억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은 2019년 하반기에 퇴사한 직원 29명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것이다. 전씨의 추가 기소건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싸이월드는 지난 1999년 설립됐으며, 2009년 회원수 3200만명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됐고 같은해 10월 서비스가 중단됐다.

전씨는 지난 2월 직원들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싸이월드Z와 서비스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월드Z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카이이엔엠 등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법인이다.

김민정 기자

강진경찰,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잇따라 검거

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지난 3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려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A(여, 32세)씨를 검거했다.

이날 검거된 A씨는 지난 5월 3일 15:35경 강진 군동면사무소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0만원을 건네받기 직전 잠복중인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자 B(52세, 남)씨가 "기존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추가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23일부터 5월3일 사이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현금 8,8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김영일 기자

무안소방, 캠핑장 일산화탄소 질식사고 예방대책 추진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은 관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로 질식사고 피해방지를 위해 캠핑장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캠핑장 화재·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에 주요 캠핑장에 소방안전보물세트을 배부하여 호평을 받았고, 5월부터 봄철 캠핑 성수기 대비 화재안전키트 안전세트를 배부하여 캠핑장 일산화탄소 및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화재안전키트(감지기 등) ▲관계자와 화재안전 네트워크 구축 ▲ 야광 소화기 설치 ▲ 야영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서약서▲ 화재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사고 예방 컨설팅 등이다.

박원국 무안소방서장은 "캠핑장에서 화재 및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야영장 관리자 및 이용객은 캠핑장 안전수칙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 "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해경, 유관기관 합동 유해화학사고 대응 훈련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4일 완도해경 (구)전용부두에서 내·외부 기관(해경·소방·군청·해양환경공단)이 참가한 가운데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완도 관할 구역 내 피항차 완도 농공단지 선착장에 계류 중인 케미컬운반선을 어선이 충돌하여 벤젠이 누출된 상황을 가상하여 사전회의를 거친 뒤 ▲물질탐지와 경계구역 설정 ▲인명구조 ▲사고해역 통제 ▲확산방지·제독 ▲폐기물 처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실효성 있는 훈련을 위해 방제정, 구조대보트 등 선박 5척과 완도해경에서 보유중인 화학보호복, 가스탐지기, 제독설비 등 위험·유해물질 대응장비를 동원하여 실제 사고에 걸맞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였다.

정경은 완도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청산도 남방 해역에서 통항중인 케미컬선박에 의한 해상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어, 관할구역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이민혁 기자

담양소방, 석가탄신일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오는 19일 석가탄신일을 대비해 관내 전통사찰과 문화재 등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전통사찰 대부분이 노후된 목조건축물로 되어 있어 초기 연소속도가 빨라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으며, 산림 주변에 위치한 전통사찰에 화재 발생 시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석가탄신일에는 봉축행사 연등 설치를 위한 촛불, 전기, 가스 등 화기사용이 증가해 화재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담양소방서는 14일까지 관내 전통사찰, 목조문화재 1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관서장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관계인 화재예방교육 및 초기 대응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담양=박종영 기자